

OHAD NAHARIN'S
BATSHEVA DANCE COMPANY



LG Arts Center

오하드 나하린과 바체바 댄스 컴퍼니
데카 댄스 Deca Dance

일시 2002년 9월 27일 - 9월 29일 · 금 : 오후8시, 토/일 : 오후6시 주최/장소 LG아트센터
안무 오하드 나하린 Ohad Naharin 출연 이스라엘 바체바 댄스 컴퍼니 Batsheva Dance Company
후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 EMBASSY OF ISRAEL SEOUL

LG Arts Center

BATSHEVA DANCE COMPANY

Artistic Director _ Ohad Naharin

General Manager/Co-Artistic Director _ Naomi Bloch Fortis

Rehearsal Director _ Yoshifumi Inao

Touring Producer _ Iris Bovshover

Tour Manager & Stage Manager _ Yaniv Nagar

Technical Director _ Roni Cohen

Chief Electrician _ Gadi Glik

Technician _ Yitzhak Assulin

Sound _ Moshe Shasho

Wardrobe _ Nirit Tavor, Roni Shemesh

Photographer _ Gadi Dagon

International Tour Management _ Multi Media Ltd

- 바체바 댄스 컴퍼니는 이스라엘 과학·문화·체육부, 텔 아비브시, 로버트 웨일, 가브리엘 쉐로버 재단, 미국-이스라엘 문화재단, 애리슨 가족 재단, 베라차 재단 그 외 유명 기업과 재단, 개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 바체바는 이번 공연에 도움을 준 디디에르 르-베스크(Didier Le-Besque)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바체바 댄스 컴퍼니와 바체바 양상들은 이스라엘 데라비브에 위치한 수잔 델랄 센터의 상주 공연 단체이다.
Suzanne Dellal Centre for Dance and Theatre • 6 Yechiel St., Tel-Aviv 65149, Israel
Tel: 972 3 5171471 • Fax: 972 3 5160231 • E-mail: dancecom@netvision.net.il
- 오하드 나하린은 마리(Mari)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LG 아트센터

대표 김의준 **공연기획팀** 이현정, 채송아, 최정희, 김윤정, 주재은, 계명국, 문수지

공연장운영팀 김재문, 박영도, 김순자, 이선옥, 최운석, 배윤정, 류선주, 오현진, 유정란, 문동순, 최현숙, 김지수, 신희영

무대기술팀 박영철 · **무대** 박동경, 엄성기, 흥자웅, 조필호 · **조명** 이종규, 박물석, 전명진 · **음향** 정연복, 송대영, 김유정

제작지원 조명 류대경, 남영욱, 신동우, 김선근, 김윤주

Deca Dance

오하드 나하린의 안무작품 종합 편 | 공연시간 : 90분 (인터mission 포함)

Black Milk (1985)

Passomezzo (1989)

Queens of Golub (1989)

Anaphaza (1993)

Sabotage Baby (1997)

Zachacha (1998)

Moshe (1999)

Naharin's Virus (2001)

* 실제 공연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며, 무용단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ot in order of appearance, subject to change)

원작 디자인

의상 Rakefet Levy

조명 Avi Yona Bueno - Bambi

음향 Frankie Lievaart

출연

Eldad Ben-Sasson • Jeremy Bernhe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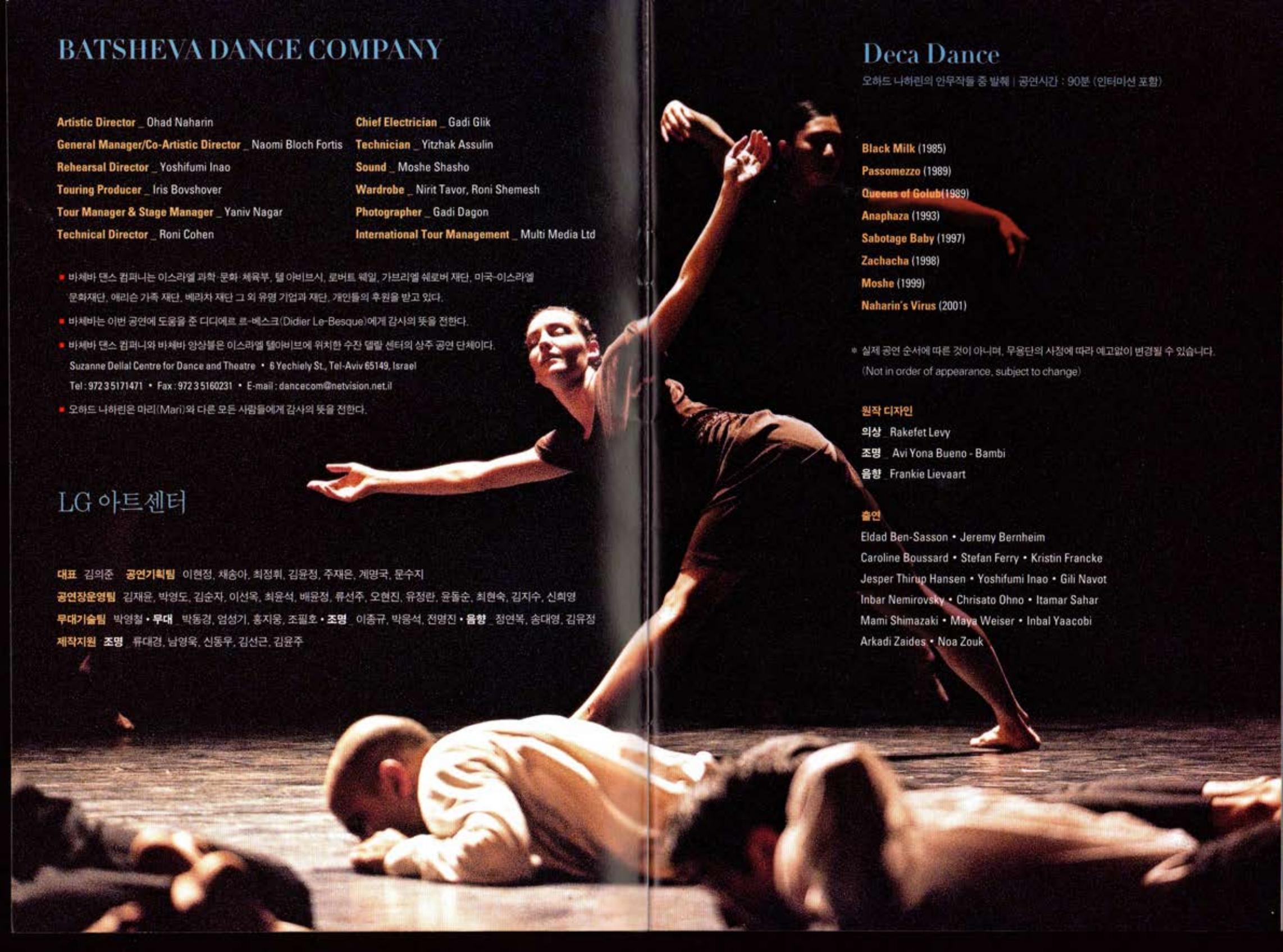
Caroline Boussard • Stefan Ferry • Kristin Francke

Jesper Thirup Hansen • Yoshifumi Inao • Gili Nav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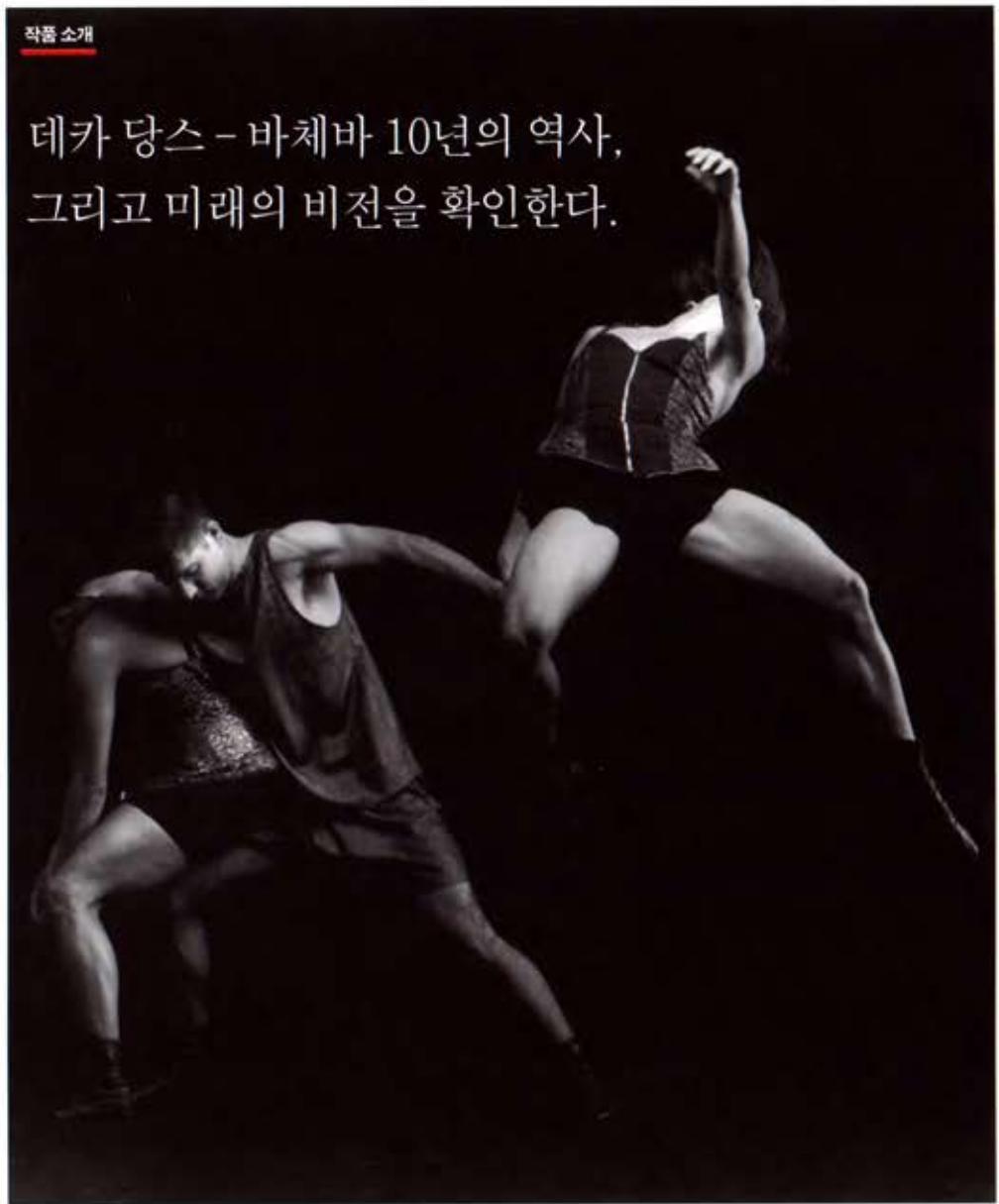
Inbar Nemirovsky • Chrisato Ohno • Itamar Sahar

Mami Shimazaki • Maya Weiser • Inbal Yaacobi

Arkadi Zaides • Noa Zouk



데카 댄스 - 바체바 10년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확인한다.



"데카 댄스는 새로운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재창조 이상이다. 나는 기존 작품들의 부분을 취해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 다시 작업하고 구성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긴다. 이를 통해 나는 나의 작업과 창조에 있어 새로운 가르침을 얻게 된다. 나는 다른 작품의 일부분들을 따와 데카 댄스에 넣었다. 이에 내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시작이나 중간, 마지막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성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원작과 같은 일관성을 띠게 되었다."

- 오하드 나하린



오하드 나하린과 바체바의 예술적 성취는 흔히 독일의 피나바우쉬와 부퍼탈 틴츠테아터의 그것과 비교되곤 하는데, 이는 10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서구적 구성미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서를 훌륭하게 조화시킨 작품들을 선보이며 변방의 작은 무용단에서 세계 정상급의 무용단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기존 레퍼토리를 과감히 수정하고 끊임없이 독창적인 신작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안무가들의 작품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탁월하게 소화해낸 이들의 놀라운 역량과 예술성은 이번 내한공연 작품인 '데카 댄스'에 모두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카 댄스'는 히브리어로 '10'을 의미하는 '데카'에서 제목을 따온 것으로 1985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나하린의 대표 안무작들을 모아 새롭게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바체바'의 지난 10여년을 회고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나하린의 안무 비전의 집대성이기도 하며 이들이 추구해나갈 '바체바'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나하린의 안무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한국의 관객들에게 '데카 댄스'는 나하린의 뚜렷한 개성과 놀라운 통찰력, 무용수들의 절묘한 양상을 엿보는 동시에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할 만큼 깊은 감동을 선사할 최고의 작품이라 할 것이다.

데카 댄스 사용음악

Traditional song arranged by Shama Khader

Traditional song arranged by Habib Alla Jamal

"Green Sleeves" from the Beggar's Opera arranged by Jeremy Barlow

Paul Smadbeck

Soundtrack from "Cha-Cha De Amor" (Song by Dean Martin, Yma Sumac & Rolley Polley)

Popular song arranged by Dick Dale

Traditional song arranged and performed by the Tractor's Revenge & Ohad Naharin

Song by Arlen Harold arranged by Marusha

Rolf Wallin

L.V.Bethoven

Steve Reich

Tzipi Fleisher

John Taverner

Cir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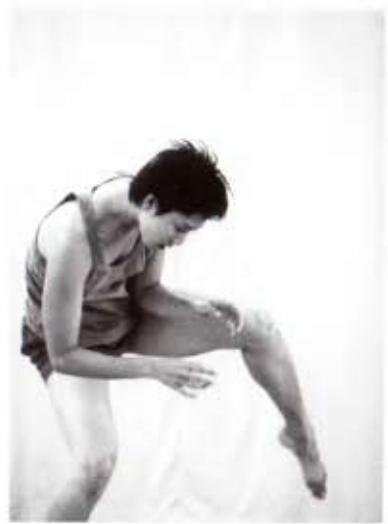
The Ventures

Pan Sonic

Roberto Pregadio - Claudia

Boss Phobie

Arvo Pärt



천부적인 공간의 예술가,
오하드 나하린

O h a d Naharin



오하드 나하린은 1952년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태어나 매우 예술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어머니는 무용과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아버지는 심리학 박사로서 사이코드라마를 강의하며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 22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바체바에서 무용수로서의 트레이닝을 시작한 그는 곧 미국 현대무용의 대모,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으로부터 '천부적인 무용수'라는 찬사를 들으며 그녀의 초창으로 뉴욕 줄리어드로 가서 새로운 무용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였고,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 21세기 모리스 베자르 밀레단 등에서 스타 무용수로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오하드 나하린 댄스 컴퍼니'를 창단, 안무가로서도 호평을 받기 시작한 그는, 곧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탁월한 예술성과 놀라운 열정을 빛내기 시작했다.

물흐르듯 순응하며 춤추는 나하린의 독특한 신체언어와

대담한 안무스케일은 세계적인 거장, 지리 킬리안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킬리안은 1987년 나하린을 NDT(네덜란드 댄스 시어터)의 객원 안무가로 초빙함으로써 'Chameleon Dances'를 필두로 'Queens of Golub', 'Passomezzo', 'Sinking of the Titanic' 등 오늘날까지 NDT의 인기 레퍼토리로 활발하게 공연되는 뛰어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1990년 나하린의 무용인생은 모국인 이스라엘의 '바체바 댄스 컴퍼니'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이미 안무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그는 1980년대 들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바체바에 입성함과 동시에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재능있고 활기찬 무용수들을 기용하여 무용단에 독특함과 참신성을 입혔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바체바의 정체성 형성과 세계화에쏟아 부었다. 미국과 유럽을 관통하는 현대무용의 흐름을

"무용을 좀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발전을 담습하는 것일 뿐이다.
나의 작품은 그것과 부합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지향한다."

- 오하드 나하린

"나하린의 독창적인 영감은 작품마다 언이어 놀라움을 이끌어내고 있다. 활기있고 감각적인 움직임, 기발한 아이디어... 이를 제외하고 그의 모든 작품에서 공통된 것을 찾기란 힘들다."

- *Le Figaro* 1999

존중하면서도 서구의 현대무용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데에서 벗어난 그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유산과 정서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에 투영시킴으로써 바체바를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가는 선진적인 무용단으로 틀바꿈시켰다. 바체바의 무용은 세계적인 센세이션의 대상이 되었으며, 쿨베리 발레, 프랑크푸르트 발레, 스페인 국립 무용단 등 세계 정상의 안무가들은 모두 그의 독특한 예술세계에 매료되어 기꺼이 작품을 위촉했다.

극적 표현의 완성을 위해 나하린은 무용수 하나하나로부터 끌어낸 생각과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한다. 이런 구상을 풍부한 유머와 재치있는 공간활용, 강렬한 시각연출과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 과감하게 표현됨으로써 춤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하린의 섬세한 감각은 특히 음악 구성에서 듣보이는데, 무용을 시작하기 전부터 음악교육을 받았던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삽입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위하여 직접 음악작업에 나서기도 한다. 최근작 'Naharin's Virus'에서 아랍 작곡가 '하비브 알라 자밀'의 곡을 사용했던 그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안무작

NAHARIN'S VIRUS (2001)

MOSHE (1999)

QUOTATIONS 1-9 (1999)

ZACHACHA (1998, Batsheva Ensemble)

SABOTAGE BABY (1997)

TWO SHORT STORIES (1997) : NDT 위촉작

YAG (1996)

Z/na (1995) : Israel Festival 위촉작

KAAMOS (1995) : NDT 위촉작

PART, DANCE (1994, Batsheva Ensemble)

ANAPHAZA (1993) : Israel Festival 위촉작

MABUL (1992) : Israel Festival 위촉작

PERPETUUM (1992) :

Le Ballet du Grand Théâtre de Genève 위촉작

KYR (1990) : Israel Festival 위촉작

SINKING OF THE TITANIC (1990)

QUEENS OF GOLUB (1989) : NDT 위촉작

KING OF WARA (1989)

ARBOS (1989) : Sydney Dance Company 위촉작

PASSOMEZZO (1989) : NDT 위촉작

TABULA RASA (1986) :

Pittsburgh Ballet Theatre 위촉작

BLACK MILK (1985) : Kibbutz Dance Company 위촉작

이스라엘 바체바 댄스 컴퍼니

Batsheva Dance Company, Israel

바체바 댄스 컴퍼니는 1964년 유대인 부호 바체바 드 로스차일드(Batsheva de Rothschild)의 후원으로 미국의 현대무용가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에 의해 창단되었다. 첫 예술감독이었던 마사 그레이엄은 'Errand into the Maze', 'Cave if the Heart'와 같은 현대무용의 혁신작들을 선보이며 바체바를 세계 무용계에 화려하게 등장시켰고 이들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현대무용은 안정된 기반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발전의 기로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작품안무를 도맡았던 마사 그레이엄 이후 미국 출신의 안무가들이 연이어 예술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바체바는 '그레이엄 식의 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80년 들어 한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기도 했다.

그 후 로스차일드의 재정적 지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던 무용단은 1990년 오하드 나하린을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영입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바체바 재건에 모은 나하린은 상주 공연장과 국가 지원금을 확보하는 한편, 재능있고 활기찬 무용수들을 기용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면서 무용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나하린의 예술적 지도 아래 바체바의 열정적인 무용수와 스탭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연평균 100회가 넘는 공연을 수행해내고 있다. 이들은 독창적인 신작들을 활발히 발표하면서 월리엄 포사이드, 지리 퀄리안 등과 같은 세계적인 안무가들의 작품들을 대담하게 소화해내고 있으며, 신진 안무가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데에도 열성이다.

한편 나하린은 1990년 바체바 댄스 컴퍼니의 산하단체인 '바체바 양상블 - 주니어 컴퍼니'를 창단, 재능있는 어린 무용수들을 발굴, 육성하고 음악, 무대, 디자인 등의 인재 분야에서 창의적인 예술가들을 양성해내도록 하였는데, 바체바 양상블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대부분 '바체바 댄스 컴퍼니'에 흡수되어 바체바로 하여금 언제나 신선한 감각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무용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시도하는 나하린은 바체바를 전 분야의 예술인들이 만나 영감을 공유하는 접점이자 역동적인 무용공동체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혁신적인 예술인들이 모여 협동과 화합으

"영감의 원천, 창조의 이유와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설명하기 조차 힘들다. 하지만 이에 기여하는 실재적이고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무용수들 그리고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이다. 내 작품은 일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용수들의 재능과 더불어 그들의 개인적인 움직임의 프레이즈까지 포용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와 애정을 보낸다."

- 오하드 나하린

"바체바 댄스 컴퍼니는 매우 뛰어나며 유연하면서도 빈틈없이 잘 단련되어 있다. 그들이 지닌 다양성과 재능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 이 놀랍고 색다른 작품을 성공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 'Sabotage Baby'에 대하여, *Le Figaro* 1999

로 입구어낸 뛰어난 역작들은 짧은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의 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고 전 국가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예술 장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0년도 안되는 사이에 발전 속도를 무려 100년이나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무용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클래식에서 펑크, 혹은 이르는 다채로운 음악구성, 끝없는 동적 에너지와 도발성……. 바체바가 보여준 혁신적인 무용은 기존의 무용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새로운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떤 움직임에서도 영감을 얻어내는 이들의 예술세계에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은 비단 이스라엘인들 뿐만 아니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과 미국의 관객들, 그리고 특히 젊은 관객들이다.

영혼과 환희, 그리고 활기가 담긴 바체바의 춤. 지금 전세계는 바체바의 춤에 열광하고 있다. 프랑스 깐느 페스티벌, 뉴욕 BAM, 홍콩 아트 페스티벌,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페스티벌과 공연장들은 앞다투어 이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이들의 공연은 하나님의 걸트 이벤트처럼 변모되곤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바체바의 공연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앞다투어 표를 구하려는 열광적인 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이스라엘 국민들의 무용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은 이들. 끊임없는 외교분쟁, 테러와 전쟁의 위험 속에서 메말라가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영혼을 춤을 통해 달래주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 이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은 진정한 경의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고 있다.





“오하드 나하린의 무용을 당신의 손 안에 절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부드러울 것이다.

잘 다듬어진 들을 생각해보라. 하나의 작은 조각품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

- Village Voice



폭발하는 에너지를 휘감는 연민 바체바 댄스 컴퍼니

글_이종호(무용평론가)

이스라엘 무용은 강하다. 발레, 현대무용, 민속무용 할 것 없이 모두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한 것이 강점이다. 우선 국립발레단과 인 이스라엘 발레단(The Israel Ballet, 1968년 창단)은 리에게는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전과 창작을 두루 공연하며 매우 깊고 안정된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 현대무용에서는 이번에 서울 공연을 갖는 바체바(Batsheva) 무용단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도 다양한 규모의 여러 단체들이 활발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텔아비브의 수잔 멜랄 센터는 해마다 자국의 무용가와 무용작품을 외국에 알리기 위한 갖가지 행사를 열면서 이따금 국제 안무경연대회도 개최하는데, 한국의 젊은 안무가가 입상한 적도 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무용단은 1949년 창단된 인발무용단(지난해 한국을 찾았던 인발 펈토와는 다른 단체이다)으로 동양적, 유대적 분위기가 짙다. 또 1970년대 서갈릴리 지역의 가아톤(Ga'aton) 키부츠에서 살던 무용인들이 뜻을 모아 세운 키부츠(Kibbutz) 현대무용단은 바체바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양대 무용단으로 꼽히고 있다. 그 밖에 국제 레퍼토리 성격의 단체인 빛도로, 농아자들로 구성된 소리와 침묵 등 많은 단체들이 활동중이다.

이스라엘 무용의 특징이라면 물론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분위기를 깔고 있는 유대적 주제나 소재를 이야기해야겠지만(아마도 기나긴 민족이산의 노정에서 태어났을 구슬프고 유랑적이며 신비감을 지닌 음악과 함께!) 그 보다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유달리 잘 정제된 몸매와 강한 신체적 힘. 그리고 거기에 더해 터무니없는 테크

닉이다. 전문 무용수들은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무용수들은 분명 남다른 데가 있다. 이런 장점이 오늘날 이스라엘 무용을 세계적 수준으로 옮려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터이다.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된 이스라엘 무용단은 다섯 정도로 기억된다. 대한민국무용제(서울무용제)에 키부츠무용단이 왔었지만 1군이 아닌 2군이어서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현대무용협회 주최 국제현대무용제에는 노아 다르와 베르티고가 왔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세계무용축제에 참가했던 젊은 안무가 요시 유탄(2000년)과 인발 펈토(2001년)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스라엘 무용의 대명사이자 세계의 선도적 무용단 가운데 하나인 바체바의 예술감독은 오하드 나하린(Ohad Naharin, 1952-)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빛-도르(Bat-Dor) 무용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군복무를 마치고 난 뒤인 22세 때 바체바 무용단에서였다.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에서 한 시즌 출연한 뒤 줄리어드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1년간 모리스 베자르 20세기 발레단(현 베자르 발레 로잔)에서 무용수로 활동했다. 그리고는 다시 뉴욕으로 건너가 10여년간 맹렬히 활동하다 1990년 바체바 예술감독으로 임명받아 귀국했다.

이스라엘의 미즈라 키부츠에서 태어난 그는 배우이며 심리학박사인 아버지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이고 어머니는 춤과 작곡을 가르치는 교사여서 어릴 적부터 매우 예술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또한 온가족이 운동을 좋아하고 신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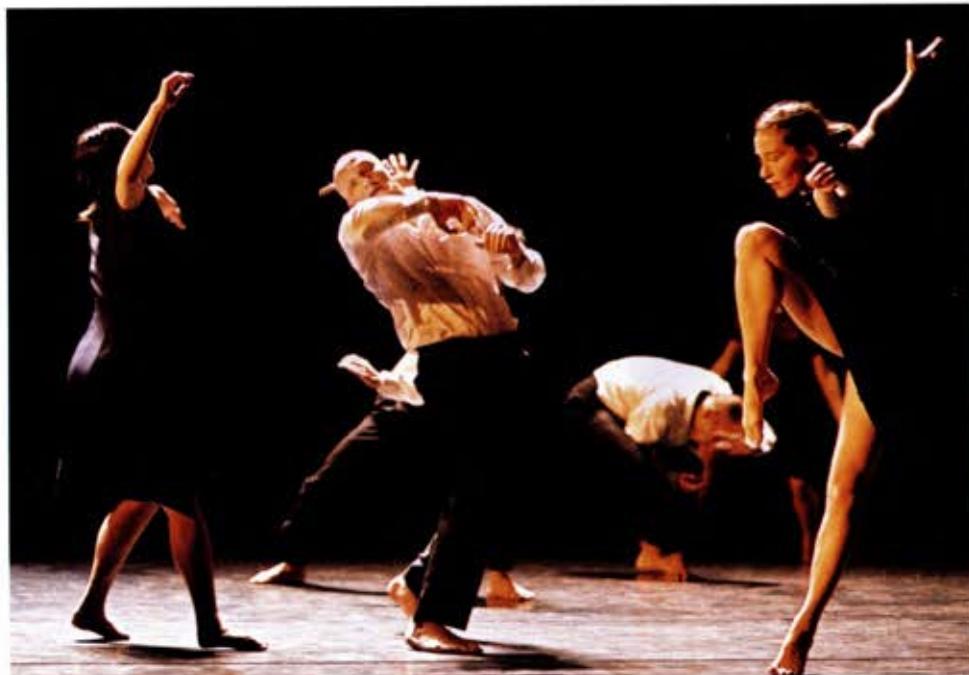
작에 예민했다. 이런 배경 덕분인지 그는 자주 무용음악의 작·편곡에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의상, 조명, 무대 장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아예 직접 디자인하기도 한다. 바체바 감독으로 취임한 지 몇 개월 뒤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스라엘축제의 요청으로 선보인 첫 작품 「벽(KYR)」에서도 이스라엘 록그룹 트레티스 리벤지와 음악을 공동제작했다. 이 작품은 그 동안 레퍼토리 무용단으로 여려 안무가들의 작품을 해오던 바체바를 나하린 중심의 단체로 바꾸는 신호탄이었다. 오늘날 바체바는 나하린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이리 키티안, 윌리엄 포사이드 등 다른 국제적 안무가들의 작품도 공연목록에 넣고 있다.

그는 1980-90년 뉴욕에서 무용단을 만들어 활발하게 공연을 했고 관객과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국제적인 안무가로서 명성을 드날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네덜란드 단스 테아터(NDT) 예술감독 자리 키티안과의 만남이었다. 키티안은, 나초 두아토(스페인 국립무용단 예술감독)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나하린의 작품을 보면서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했고 1987년 그에게 신작 안무를 의뢰했다. 그것은 일종의

보증수표였고, 이어 그에게는 숱한 안무 의뢰가 들어왔다.

두아토와 나하린은 각자 비슷한 시기에 자국의 대표적인, 그러나 다소 구태(舊態)에 머물러 있던 단체의 책임자가 되어 일대 혁신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클래식 발레(스페인)나 미국식 현대무용(이스라엘)에 익숙해 있던 자국의 관객들에게 현대발레,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을 단시일 내에 바꿔놓았고, 새 감독의 역량에 대한 불안과 빈신반의, 선배세대의 반발을 일거에 해소한 기린아들이다. 동시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작품 스타일로 이 무용단들을 세계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이들이 세계적 안무가로 급성장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키티안과의 만남이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후배 안무가 키우기」에 남달리 열성인 키티안의 빛나는 발굴풀들인 셈이다.

나하린은 이제 바체바는 물론,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 베자르 발레단, NDT, 쿨베리 발레, 핀란드 국립발레단, 프랑크푸르트 발레, 리옹 오페라발레, 스페인 국립무용단 등 세계 유수의 무용단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작품을 만든다. 또한



킬리안의 NDT에 젊은 무용수들로만 구성된 NDT 2가 있듯이, 그는 취임 직후 바체바 양상불을 만들어 젊은 무용가들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체바 양상불에서 배양된 젊은 재능들이 끊임없이 세포분열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 현대무용의 불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류와 자기 인맥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우리 무용계의 풍토에서는 꺼이나 부러운 일이다.

안무자로서 나하린은 무엇보다도 신체 자체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그는 “움직임은 곧 치유(治癒)와 강화(強化)의 수단”이라면서 인체 자체, 그리고 무용수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하드 나하린의 춤 하나를 손에 쥐어보라.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울 것이다. 잘 갈고 닦아 윤을 낸 반질반질한 돌처럼, 하지만 신비로운 조상(影像)의 한 조각같던 그 둘은 던지면 무기가 된다” 미국 평론가 데보라 조위트의 이 말은 나하린 춤의 특징을 매우 시적으로,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하린은 언제나 새롭고 파격적이며 극단을 불사하는 동작들을 사랑한다. 창작의 동기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으로부터 비롯된다. 나는 발견하기 불가능한 것을 발견하고 싶고,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고 싶다”는 말로 대신 한다. 여자보다는 남자 무용수를 활용 돌보아하게 하는 베자르 발레단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그의 설명은 단호하다. “나는 (당시 베자르 발레단이 있던) 브뤼셀이 싫었다. 움직임에 관한 한 내 몸은 도무지 편치가 않았다. 연습을 할 때에도 전혀 흥분되지 않았다. 공작의 날갯짓 같은 동작들이 싫었다. 지금도 나는 거울 없이 연습한다”

기존 유명 안무가들의 작품에 익숙해 있던 바체바 단원들의 마음을 단시일 내에 사로잡은 것도 바로 나하린의 이런 재래식 미의식에 대한 거부, 파괴와 일탈. 그러면서도 저 멀리 초점이 잡힐 듯한 어떤 극단을 향해 가는 즐기찬 흐름의 정신이었다. 스토리 텔링에는 별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현대무용 작가들이 그렇듯 그 역시 메시지보다는 에너지를, 정서보다는 구성과 해체를, 무용수의 신체곡선보다는 무대공간과 동작의 형태를 중시한다.



나하린은 춤 자체의 에너지와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무대 전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경계를 넘어서기, 한계 초월하기, 끝까지 가보기에 매력을 느낀다. 그 절정이 「아나파즈(Anaphaza, 1993)」가 아닌가 한다. 아나파즈란 유사분열(有絲分裂)의 증기와 증기 사이의 시기를 가리키는 생물학 용어인데, 이 작품에서 무용수들은 마치 구획된 듯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다른 극으로 나아가다 종국에는 하나의 새로운 전체가 된다. 엄청난 금풍에 휘말린 듯 폭발적 에너지를 발산하면서도 일말의 서정(抒情)을 잊지 않는다. 라이브 연주, 풍성하고 다채로운 의상, 영상물의 투사, 대사 등 온갖 무대요소가 충동원되는 그의 작품들은 「홍수(Mabul, 1992)」, 「Z/na(1995)」, 「Yag(1996)」, 「Sabotage Baby(1997)」 같은 장편물에서 보듯 격정적인 에너지 분출이나 장르혼합의 실험성 뒤에 사람과 연민에 대한 부끄러운 갈망을 깔고 있다. 「아나파즈」는 지금까지 4개 대륙에서 25만여명이 관람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가 고국인 이스라엘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은 키부츠 현대무용단을 위해 만든 「검은 우유(Black Milk, 1985)」였

다. 바체바무용단을 위해서도 두어 편을 안무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극소수의 무용인을 제외하고는 그의 그릇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다. 이후 「타블라 라사(Tabula Rasa, 1986)」, 「아르보스(Arbos, 1989)」, 「와라의 왕(King of Wara, 1989)」, 「골룸의 여왕들(Queens of Golub, 1989)」 등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최근작들 가운데서는 독일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관객모독」에서 발상을 얻은 「나하린의 바이러스(Naharin's Virus, 2001)」가 큰 주목을 받았다.

나하린이 ‘접수’ 하기 전까지 바체바는 일종의 레퍼토리 무용단이었다. 그레이엄을 비롯해 앤빈 에일리, 글렌 태틀리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안무가들의 작품을 주로 공연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나하린이 예술감독으로 들어서자마자 성격이 일변했는데, 이스라엘 현대무용단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견위있는 바체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해하던 사람들도 나하린의 놀라운 예술적 능력과 지도력 앞에서는 한결같이 “그의 바체바 입성은 ‘성공적인 쿠데타’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최고의 무용단답게 바체바는 중요한 국가행사에 나선다. 1998년 4월 30일, 건국 50주년 기념행사 전야제인 유대교 안식년 축제에서 신예 관한 노래가 깔리는 가운데 「아나피즈」의 군무 부분을 공연할 예정이었던 바체바의 무용수들은 유대교회측의 반대로 의상을 바꾸게 되자 공연을 거부하고 퇴장, 화젯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른바 「갓케스 시간」이다.

당초 120명의 무용수들은 검은 모자와 검은 의상을 입고 춤을 추다가 이를 벗어버리고 헐렁한 짧은 팬츠와 소매없는 넓은 속셔츠 차림으로 공연하기로 돼 있었다. 춤동작이 종교에 대해 모독적이고 의상의 노출정도가 심하다는 불평을 전해들은 종교정당 의원들은 즉각 네타나후 총리를 찾아가 항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들이 중재에 나섰고 총리는 에제르 와 이즈만 대통령에게 달려가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매우 불안한 연립내각이어서 종교정당들이 합력을 거부하면 연정이 깨질 판이기 때문이었다.

공연 개막 및 시간을 앞두고 와이즈만 대통령은 안무자 나하린을 불러 「국가적 단합을 위해 무용수들이 갓케스(긴

속옷)를 입도록 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한 뒤 미국에서 와 있던 엘 고어와의 오찬을 계속했다. 사방에서 압력을 받은 나하린은 무용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썼다.

그러나 결과는 '무용수들의 반란'이었다. 이런 정치적 압력과 물이해를 감수해야며 무대에 오를 수는 없다면서 공연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1인2천여 관중은 이들에게 흰호와 친사를 보냈다고 당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다음날 나하린은 「어제 나는 누군가와 전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부조리하고 우스꽝스런 상황에 휘말렸다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단지 하나, 우리의 영혼을 맡았다는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후 이스라엘에서 정치와 종교, 예술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바체바 무용단을 이야기하면서, 나하린의 의표를 찌르는 안무력과 무용수·연주자들의 탁월한 재능과 깊은 열정에 터복하면서, 그리고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는 자존심높은 무용



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한 인물을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다. 이 무용단의 창설자인 바체바 드 로스차일드 남작부인(Batsheva de Rothschild, 1914-1999) 말이다. 영국 출생으로 프랑스에서 성장한 남작부인은 긴 설명이 필요없는 로스차일드가(家)의 프랑스 축 일원으로, 로스차일드은행의 설립자인 잠 드 로스차일드의 증손녀이자 에두아르 드 로스차일드 남작의 딸이다. 부인은 1964년 바체바무용단을 설립, 오늘날 세계적인 예술단체로 성장하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1967년에는 밧도르무용단도 창설했다.

소르본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수학한 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자유프랑스 군의 일원이기도 했다. 종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무용을 돋기 시작해 롤프 드 마레(Rolf de Maré, 1888-1964, 예술애호가이자 무용문화운동가로 술한 업적을 남겼으며 1932년 세계 최초로 안무경연대회를 열기도 했다)가 설립한 국제무용문서보관소의 운영을 후원했는데, 이 보관소의 소장품들은 현재 국제무용협회(CID-UNESCO)가 운영을 맡고 있는 스트

홀름 무용박물관의 기초가 된다. 부인은 또 1949년에는 미국 현대무용을 프랑스인들에게 널리 알릴 생각으로 「미국의 예술무용(La danse artistique aux Etats-Unis)」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을 본격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으며 1958년 이스라엘에 첫착한 뒤에는 그레이엄을 이스라엘로 초청, 젊은이들을 가르치게 해 이스라엘 현대무용의 미래를 열었다. 이후에도 문화예술과 과학분야의 후원자로 활기찬 활동을 펼쳐 89년에는 프랑스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이스라엘 상'을 받기도 했다. 부인은 폐기종으로 숨을 거두면서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관객들이 무대 위의 작품이라는 최종 결과물만을 즐기고 있을 때 그 뒤나 옆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들에게 바체바 남작부인이 있다는 것이 부럽고,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단언컨대 한동안 충격의 여진을 몸 속으로 느끼게 될 바체바무용단의 서울 공연을 감상하면서, 그리고 극장 문을 나서면서, 부인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으면 좋겠다.

2003·2004년 LG아트센터 기획공연 해외무용 시리즈

세계 무용계를 움직이는 유럽 안무가들

피나 바우쉬, 마츠 에크, 매튜 본, 빔 반데키부스, 사사 발츠 그리고 윌리엄 포사이드…

2003

4월

스웨덴 마츠 에크의 쿨베리 발레단 '백조의 호수'

새롭고 유머러스한 해석, 독특한 안무로 유럽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마츠 에크의 쿨베리 발레단. 백조들이 튀튀(tutu)를 입은 대머리 멘탈의 남자 백조들로 변신하고, 왕자 지크프리트는 마마 보이로 표현되는 마츠 에크만의 신선한 해석을 만날 수 있다.



4월

독일 부퍼탈 피나 바우쉬 무용단 '마주르카 포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우리 시대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쉬. 2000년의 '카네이션'에 이은 두 번째 내한 작품은 포르투갈을 배경으로 만든 '마주르카 포고(Masurca Fogo)'이다.

5월

영국 매튜 본의 어드벤처스 인 모션 픽처스 '백조의 호수'

남자 백조의 힘있고 에로틱한 춤으로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동성애적인 코드로 인해 96년 초연 당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성장한 빌리가 백조 복장으로 도약하는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 애덤 쿠퍼의 열연 장면이다.

9월

벨기에 빔 반데키부스의 올티마 베즈 신작

ROSAS의 안느 테레사와 더불어 벨기에 현대 무용가로 차세대 유럽 무용계를 주도할 안무가로 각광받는 빔 반데키부스. 강렬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특히 젊은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10월

독일 사사 발츠 무용단 '육체(Körper)' & '노바디'



움직임의 본질에 대한 끝없는 탐색을 담은 사사 발츠의 아심작 '몸' 시리즈 중 두 편. 인간 육체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육체(Körper)'와 육체의 정신적인 면을 탐구한 '노바디(noBody)'를 통해, 지난 97년 내한 공연 이후로 새롭게 변화된 그녀의 현재 모습을 만날 수 있다.

2004

1월

윌리엄 포사이드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레단

1984년 취임하여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을 명실공히 세계 최정상의 무용단으로 올려놓은 윌리엄 포사이드. 2004년 9월을 기점으로 지난 20년간 함께 해온 발레단을 떠나기로 결정한 윌리엄 포사이드와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빛이 흐르는 길

희망이 흐르는 길

LG전선이 있습니다

